

시 정 질 문 답 변 서



제 천 시

답 변 서

질 문 의 원	김 꽃 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답 변 자	직 위 제천시장 성 명 이 근 규
제 목	구)동명초등학교 부지 활용 계획
<p><u>질문요지</u></p> <p>○ 구)동명초등학교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p>	
<p><u>답변내용</u></p> <p>○ 제천시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열정이 계신 김꽃임 의원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p> <p>○ 김꽃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동명초등학교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p> <p>○ 먼저, 그동안 구)동명초 부지의 활용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p>○ 모두가 아시다시피 구)동명초 부지는 쇠퇴한 도심에 위치하여 주변지역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입장입니다.</p> <p>○ 그동안 시는 끊임없이 구)동명초 부지를 도심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2014년에는 교육문화</p>	

센터 건립사업 중단 후 구)동명초 부지에 제천영어캠프 조성 사업을 충북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제천시가 지원을 하는 방안을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 제시하였으나 교육감으로부터 부지 예산 지출과 추가재원 확보가 지난하여 부지 환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 2015년에는 부지에 장기적으로 도심활력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단기적으로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의 일환으로 본격사업 추진까지 임시사용 하도록 공원 조성과 열린시민아고라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의회 사전설명 과정에서 반대 의견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2016년에는 제천법원과 검찰청 이전 유치를 합의하고 법조타운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법원행정처 실사단의 현지확인 결과 부지폭과 면적이 협소하며, 제천지원 이전에 23,000m² 규모의 면적이 필요하여 신청사 부지로는 협소하여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 2017년에는 제천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주상복합시설 등 공공목적의 시설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국토부의 반대로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 이밖에도 2015년부터 최근까지 주상복합아파트, 호텔, 병원 등 민간자본 유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민간부문 사업에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공익 목적에 반하고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추진시 민간기업의 부도 등으로 시 재정예 막대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도심에 공공시설의 건립을 염원하는 시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사업이기에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동안 2015년 11월부터 제천시는 구)동명초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부시장·국·단장 및 주요 과장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검토하여 왔습니다.

○ 그 결과 문화산업 융복합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정하여 구)동명초 부지에 제천 예술의 전당, 지식산업센터, 시민공원이 들어서는 제천문화산업복합단지 조성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에 시에서는 구)동명초 부지 활용 방안으로 제천문화산업복합단지를 최적의 안으로 결정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 먼저 제천 예술의 전당 건립입니다.

○ 제천시 문화예술공연 시설은 1984년 신축한 문화회관이 유일하나, 당초 교육 및 행사 위주의 목적으로 건축되어 문화예술공간 기능 수행이 어려워 복합 문화예술공간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 그동안 시는 문화예술공간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막대한 소요예산에 비추어 국도비 지원은 국비 20억, 도비 20억에 불과한 실정으로 우리시 자체 예산이 없어 번번히 무산된 바 있습니다.

○ 지난 6월 28일 시장이 직접 제천 예술의 전당 건립 국도비 확보 활동 일환으로 이시종 지사님을 면담하여 도비 지원을 요청, 50 : 50으로 예산부담을 합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7월 4일 이시종 지사께서 충북도 임시회에서 제천 예술의 전당 건립 지원을 발표 하셨고 7월 18일 충북도와 제천시의 관계자가 도비 지원 방안을 협의하여 본격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제천 예술의 전당을 구)동명초 부지내에 건축면적 4,000㎡, 연건축면적 15,575㎡의 지하3층 지상3층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하고자 합니다.

○ 예술의 전당 총사업비는 정부투자사업 신청금액인 420억 으로 국비 20억원, 도비 200억원, 시비 200억원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예술 대공연장 1,200석과 부속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의 예술활동욕구 해소 및 전문 문화예술공연 향유 기회 제공 으로 지역문화 육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 특히, 예술의 전당 지하에 50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충하 여 주차난 해소는 물론 방문객의 도심 인구 유입을 통한 도심 활 력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 또한 제천시와 주변도시인 단양, 영월, 정선, 평창, 태백, 영 주는 구한말 나라가 어려울 때 의병을 일으켜 호좌의진을 구성하 여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나라를 구했던 역사적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우리시가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여 중부내륙권 문화 공간을 확충하고 주변지역과 문화예술 향유는 물론 지역문화 발굴 발전에 공동협력하는 광역문화벨트화 협약을 지난 8월에 이들 도시와 체결한바 있습니다.

○ 두 번째는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 복합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3조에 명시된 법에 규정된 건물로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입주기업 지원시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은 공장 신축이 전면 금지되고 있으나 지식산업센터는 신규 신축이 예외로 인정되어 수도권에 전국 지식산업센터 80%가 위치하고 있으며, 역세권과 대규모 개발지구 및 주택지 등 도시재생을 위한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은 민간자본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시 분양가와 임대료를 감안하여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신축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구)동명초 활성화 방안으로 복합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산업입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의 입지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 시가 계획하고 있는 복합지식산업센터는 건축면적 1,816㎡,

건축 연면적 12,712㎡로 지하 1층, 지상 6층의 미학적 디자인이 가미된 빌딩식 건물로 신축하여 중소 벤처기업, 청년기업 등 산업 공간과 입주기업 지원시설공간을 조성하여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자동차부품과 튜닝산업, 한방천연물산업, 사회적기업 등이 근심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센터의 사업비는 국비 70%인 137억 시비 30%인 59억으로 총 196억원을 계획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31일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 8월 18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우리시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목적과 기대효과를 반영하여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한 바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도심 시민공원 조성입니다.

○ 도심 중앙부에 시민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시민 만남과 화합의 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시민공원은 복합지식산업센터와 예술의 전당 건립 잔여지에 조성할 계획으로 시민광장과 소규모 공연장, 산책로 등으로 구성하며 사업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도시재생사업비 7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구)동명초에 예술의 전당, 복합지식산업센터, 시민공원과 대규모 지하주차장 600면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도심 공동화 해소는 물론 문화와 미래형 지식산업 생산 공간이 공존

하는 제천의 랜드마크를 건설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서 시에서는 구)동명초부지 활용과 도심지역 활성화
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존경하는 김정문 시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이
번 기회를 통하여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 이상으로 김꽃임 의원이 질문하신 구)동명초부지 활용계획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